

학내 기관 탐방

언어 교육원

이번 호 ‘학내 기관 탐방’에서는 김성곤 언어교육원장(현 영어영문학과 교수)을 만나본다. 언어교육원은 단순한 언어 교육 기관의 차원을 넘어서 서울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수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언어교육원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자.



김성곤 언어교육원장(영어영문학과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 지금까지 언어교육원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교육원에서의 언어 교육이 대학 교과 과정 내에서의 언어 교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언어교육원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성곤: 서울대학교는 인문대학에 영어영문학과와 제2외국어 학과들이 있고, 기초교육원의 주관 하에 <대학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의 언어 교육이 이 학내의 다른 언어 교육과 다른 점은 일차적으로 실용 영어를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문을 위한 언어보다는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 교육, 즉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을 위한 언어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특징으로는, 언어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함께 가르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최근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칠판이 있는 낡은 교실이 아니라 최첨단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교육입니다. 둘째는 언어와 문화를 병행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불고기나 김치를 만들도록 시킵니다. 수업 중에는 한국말만 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요리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는 거지요. 살아 있는 생활 용어, 실용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거지요. 또는 외국인 학생들을 판문점, 안동, 경주, 민속촌 등으로 수학여행을 보내거나, 민박을 시킴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현실을 보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이러한 점이 바로 언어교육원만의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인문대학의 언어 교육은 언어 자체보다는 학문적인 서적을 읽고 학문적인 글을 쓸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의 <대학영어>는 전공과 실용 사이의 교양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교양과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또 전공 진입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 기초교육원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기초교육원과 언어교육원의 역할 분담은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차 통합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어느 기관이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곤: 기초교육원은 학부 교육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언어교육원과는 성격이 다르지요. 언어교육원은 언어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대학영어>를 관장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사립대학에서는 대개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교육을 통합 관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교육원이 시

학내 기관 템방

설이나 교수진에 있어서 언어 교육을 위한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교육원은 4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언어교육연구센터, 언어능력측정센터가 그것입니다. 각 센터별로 4명의 교수가 파견 와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교수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지만, 언어교육연구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 발행하는 『어학연구』(Language Research)는 국제적인 학술지로서, 국내외의 권위 있는 언어학자들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어교육원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 두 동에 최첨단 시설

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음향과 영상 시설이 마련된 강의실과 극장도 있고, 최근에는 카페 FANCO가 문을 열었는데, 서울대의 명물로 자리 잡았지요.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겸해 운영하는데,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제공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입니다. FANCO가 생기니 휴식 공간도 되고 그 옆 광장에서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교우 관계를 쌓는 것이지요. 저는 언어교육원의 주요한



어학 공부에 필요한 최신식 음향 및 영상 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언어교육원 건물

기능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로 교류 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곳에서 국제적인 경험 을 쌓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저절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지요. 언어교육원은 서울대학교의 거울입니다. 이곳에서 외국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첫 인상을 갖

게 됩니다. 건물 안에는 편리한 각종 최신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무실에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언어와 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대학영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관점에서 기초교육원과 논의해 볼 수 있겠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영어 외의 제2외국어,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런 외국어들은 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소외되고 있고 수요가 적어 침체 상태입니다. 언어교육원에서는 이런 언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곤: 사실 이쪽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영어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의 새로운 경향은 중국어의 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일본어를 수강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외의 제2외국어 강좌들은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지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문대학에서도 여기서 하는 제2외국어 강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강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별도의 돈을 내지 않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강좌를 선호하지요.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인 수요의 문제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권의 인기가 그전만 못하다는 것이죠. 졸업한 뒤의 취직 문제와도 관계가 있겠지요. 언어교육원에서도 제2외국어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강좌가 모두 제공되고 있고, 이 분야의 연구원들도 있어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 학과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학생들을 보내 주기도 하고 우리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공을 그쪽으로 하라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2외국어 학과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일 거예요.

어쨌든 서울대학교 학생이면 기본으로 영어는 잘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스페인어든, 러시아어든, 혹은 중국어든 일본어든, 하나씩 더 하게 한다면 아마 저절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성곤: 현재 30여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 400여 명이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3달이 한 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에 약 1600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셈이죠. 시험을 보고 자기 수준에 따라 반을 배정받습니다. 오전에는 학생들끼리 토론하면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또 멀티미디어실에서 말하기와 듣기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오후에는 문화 강좌를 하는데, 태권도, 바둑, 국악, 무용, 사물놀이를 가르칩니다. 이처럼 오후는 아주 재미있게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였을 때는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일대학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 기관 가운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UCLA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전원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들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아주 잘 가르치는 것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또한 정운찬 총장님과 정명희 전 부총장님께서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 '메카 오피스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구비되자 세계 각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서 활발하게 홍보를 시작한 것도 언어교육원의 위상을 뚜렷이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작년 10월 9일 한글날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글 글짓기 대회>를 그곳 한국문화원과 함께 개최했습니다. 그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거기에서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주고 무료로 언어교육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도 이제는 해외에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곤: 그 과정은 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인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자격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도 한국어교육지도자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한국인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언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외국인 교수들의 연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런 프로그램들은 해외에서 한국학이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한류의 덕도 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

아시아나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지원해서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류 이후에 한국,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자 하면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외국인들이 급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LG가, 말레이시아는 삼성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곳 사람들은 삼성이나 LG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가보고 기술도 배우고 한국에서 취직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에 마하티르(Mahathir) 전 총리가 ‘동방을 보자(Look East Policy)’라는 정책을 꾸몄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해서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고 일본과 한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120명의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본원에 와서 일 년 반 동안 공부합니다. 언어교육원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국내의 공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지금까지는 한양대학교 공대에 주로 갔었는데, 금년에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공대에도 진학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상당히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영어논문작성법 워크숍>이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위논문워크숍>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언어교육원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을 초빙하기도 했습니다만, 언어교육원과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곤: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교육원에도 대학원생들을 위한 영작문 개인 지도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함께 주최하지 않더라도, 두 기관은 지금처럼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언어교육원의 기본 방향이 실용 외국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아쉽게 생각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원서를 읽는 능력이 예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어교육원에도 원서 읽는 훈련을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단과 대학에서 담당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더 나아가서 자기 전공 분야의 책을 원서로 읽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언어교육원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영어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어 캠프에서는 2주 동안 학생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언어교육원에서는 TEPS와 같이 외국어 능력 측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한국어 능력 측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성곤: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 과정이 끝날 때마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준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요, 6급을 마친 사람은 거의 한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4급을 마친 경우에는 어느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언어능력 측정 시험은 다른 주요 기관에서 모두 인정받고 있습니다. TEPS는 이제 전국적인 시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연간 응시생이 20만 명쯤 되지만, 금년에는 육군본부와 협약을 맺어 모든 육군 병사들이 TEPS를 보게 되어 기하급수적으

로 응시생이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약 6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TEPS를 응시하게 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기관과 금융 기관에서도 TEPS는 필수적인 시험이 되었습니다. TEPS는 로열티를 미국에 주지 않아서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험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원장님 재임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언어교육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